

카페정보 나의활동
매니저 S 홍새벽
since 2006.05.29.
카페소개
가지1단계
9,420 초대하기
즐겨찾는 멤버 814명
게시판 구독수 1,512회
우리카페앱 수 405회
주제 문학/창작 > 소설/인터넷소설
카페 글쓰기
카페 채팅
검색
즐겨찾는 게시판
전체글보기 89,694
카페태그보기
베스트게시글
【알립니다】
【알립니다】- 小
【경고리스트】
【의견&신고】
【등업게시판】
【EVENT】
【2019 활동이벤트】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초자연적 또띠아】
【다회님만】
【홍보관】
홍보관 허가요청
:Community:
【가입인사】
【출석체크】
【릴레이 소설】
【끝말잇기】

【Fiction】 - 煥 >

[정엘 장편] 상처받은 엘의 유희 4화

ko 운디네 1:1 채팅
2020.06.19. 15:40 조회 649

댓글 10 URL 복사

할게 없어서 심심해요~ㅋㅋㅋ

===

맙소사 트로웰?!?!
걔가 왜 저깄어?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한척. 트로웰을 처음보는 사람인척 연기했다

'들키면 안돼.절대로.."

때가 아니야. 난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해. 그들과는..엮이고 싶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건 지난 2000년동안 유희를 많이 다니면서 나의 연기력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것
덕분에 나는 빠르게뛰는 내 심장과는 다르게 평온한척 연기할수 있었다

"어..엘?"

당연히 트로웰은 들어오고나서 나를보고 놀랐다. 하지만 내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누구가봐도 처음보는 사람을 보는듯한 표정

"응?그게 누구니?"
"아..아니..에요"

트로웰은 반말하려다 의식적으로 존댓말로 고쳤다.
하긴 인간한테 존댓말이라니 상당히 어색하겠지

"아무튼 네자리는 저기 끝쪽이다"

다행히 트로웰과 내자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자리에 앉고나서부터 조회가 끝날때까지 그의 시선은 내게만 머물러져 있었다

"조회는 여기까지. 그럼 오늘 수업도 잘들어~"
"네~"

조회가 끝나자마자 여전히 그랬듯 우리는 모였다
지금상황에서 내게 누구보다 절실한 내 친구들이였다.

【Behind Story】 N
【잡담코너】
【비평&추천】
:With 煥:
【버뮤다 삼각지대】 - 煥
【전력60분】 - 煥
【Cartoon】- 煥
【Drawing】-煥
【Quiz¿】 - 煥
【Fiction】 - 煥 N
【Etc】 - 煥
【完 - 끝났어요!】 N
:CREATION:
【Request】
【Cartoon】-Etc
【Drawing】-Etc
【Fiction】-Etc
:Operation:
게시물 리턴
【(구)가입인사】
【폐쇄예정】
:Past:
:지난 이벤트:
【2015 대항전】
【2016 활동이벤트】
【2017 콘테스트】
마니또
순간포착!
스킨&대문
LINK
접속멤버 2명
pjh5338
S 홍새벽
카페 인기 태그 more
최근 3일간 태그가 없습니다.
카페탈퇴하기
Beta 궁금한게 있을 땐
카페 스마트봇

"아~오늘 수업 진짜 귀찮은것만 모아놨어~"
"그래도 그냥 들어~성적 더 떨어질래?"
"청화 넌 전교 1등이 잖냐. 그래서 그런 소리가 쉬운거라고"
"정 안되면 내가 도와줄게~"
"크~역시 믿고보는 우리학교 전교 1등~ 얼굴도 학교에서 제일 이쁜데 마음씨도 착하시네~"
"괜히 띄우지마~너 속셈 다보여"
"푸하하, 수진이 또 청화 칭찬해서 뭐 뜯을라 그랬구나~"
"칫,틀켰네"
"푸하하하!"

친구들과 대화하자 그나마 긴장감이 사라진다. 여기서 다행인건 트로웰이 반아이들에게 둘러쌓여서 움직일수 없다는걸. 특히 여자애들한테 잡혀 있었다. 여자애들 눈빛을 보니 한동안 트로웰을 놓아줄거 갔지는 않다

"아,청화야. 오늘도 갈꺼지?"
"응?어딜?"
"거기말이야 거기~"
'본부말이야~'

눈빛으로 말하는 다빈이의 말에 난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싱긋웃었다.

"물론이지~"
"그럼 이따 점심시간에 준비해보자~"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나면 우리는 최근에 심각한 사건들이 자주 터져서 우리가 직접 현장으로 이동해서 사건현장을 정리한다. 물론 경찰이 있지만 경찰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비밀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어떤 특정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토달지 않는다는것. 즉 우리조직의 마크인 푸른늑대와 얼음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문장이 우리는 쉽게 내부로 들어갈수 있다. 물론 들어갈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확실히 가리고 들어간다. 그것도 비밀리에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건현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사라진다. 마치 신기루처럼

점심시간은 빠르게 다가왔고 서둘러서 점심을 먹은 우리들은 학교 뒤뜰에 모여 회의 하기 시작했다.

"일단 이번에 우리가 가야할곳은 경매가 일어나는 곳이야. 그런데 경매되는게..."
"??무슨 경매길래 그래?"
"인신매매.."
"!!"

그런게 아직까지 존재한단 말인가!!게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경매라니!!

"이런 망할놈들..!그렇게 당당하게 경매라니!"
"일단 이건 경매가 이루어지는 건물 설계도야"

나는 소라가 전해주는 설계도를 살펴보고는 들어갈 위치를 선정했다

"일단 들어가는건 여기가 가장 괜찮겠어. 경매장과 가장 가깝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일 테니까."
"하지만..!"
"괜찮아. 다들 암벽등반 할줄 알지?"
"후..그래 널 누가 말리겠니."

내가 선택한 입구는 절벽위에 있는 작은 쪽문이였다. 그나마 가장 들킬 걱정없고 사람도 없으니 가장 안전한 경로다.

"그럼 다빈이는 맡은대로 들어가자마자 CCTV차단해주고 소라는 퇴로를 차단하고 들어가기전에 경찰쪽에 연락해서 인근 지구대에 있는 경찰들 싹다 오라그래. 그리고 수진이는 나랑같이 마치 귀족인양 뭣모르고 나대는 놈들좀 손봐주자. 두사람도 일 끝났으면 합류 하고"
"알겠습니다."

부스럭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 대는 소리가 들렸다.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그냥 넘겼다

"시작은 경매 30분전인 7시 30분. 건물아래 절벽으로 모여."
"네!"

우리들은 신속하게 계획을 짜고는 반으로 돌아갔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모른채

그들이 뒤뜰에서 나가자 조용히 숨어있던 사람이 나왔다

"..오랜만이야..엘"

바로 트로웰이였다.

<딩동댕동>
"흐아~수업끝이다~"
"일단 우리는 집에 먼저 가볼게~이따 늦지마 수진아~"
"안늦어. 이런일에 내가 늦는거 봤어?"
"어. 많이"
"이익!소라 넌 아니라고 해주면 어디 죽기라도 하냐!"
"하지만 사실이야~"
"청화 미워!"
"어?확 짤라버린다~"
"잠깐 그건 안돼~내가 미안해애~"
"푸하하, 수진이 태세전환하는것봐"
"그만 웃어.소라,다빈"
"미안한데 웃음이 안멈추네~푸흐흡!"

그 웃음에 결국 나도 수진이도 동화되었고 우리는 동시에 웃음를 터뜨렸다.

"암튼 준비해야 되니까 나먼저 간가~"
"엇!나두 먼저 가볼께"
"이따보자~"
"다들 잘가~"

순서대로 수진,소라,다빈이가 나가자 반에는 나와 트로웰만이 남았다. 그는 나에게 할말이 있는지 아까부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친구들과 얘기 하는동안에도 그가 자꾸 쳐다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느라 힘들었다

'으아아아~안면근육에 경련올거 같애"

나는 혼란 스러운 마음을 겨우 다잡으며 집으로 가기위해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막 반을 나가려는 그때

"잠깐만"

트로웰이 내 손목을 잡았다
그순간 나는 겨우 다잡았던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순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들었다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그들이 나를 죽였던 그때가..

'들키면 안돼''

나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연기로 만들어낸 순진한 소녀의 가면을 썼다.

"응?왜그래? 음...트로웰?"

누구나 놀랄만한 나의 연기실력에 나또한 감탄했다.
속은 두려움과 공포때문에 미칠지경인데 얼굴은 마치 처음보는 사람인양 순진무구하다니

"엘...맞지?"
"엘..?그게..누구야?"
"맞지. 엘이지? 확실히 엘이야. 미안해,엘. 내가..내가..정말 미안해"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거리는 그의 모습에 나는 고통스러웠다

그들이 미웠다. 아무리 사과를 한들 받아주지 않을꺼야. 그들은 더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다시는 예전으로..돌아갈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왜 또 흔들리고 있는거야!!'

흔들리면 안돼
넘어가선 안돼
절대로.. 무슨일이 있어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내 얼굴에 스치는 다양한 감정들을 보지 못했다

'난 아직 너희들을 용서할수 없어. 용서하기엔...나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나는 트로웰이 잡고 있던 손목을 뺀 후에 말했다

"아무래도 너 사람 잘못본거 같아. 내이름은 엘이 아니야. 내이름은 청화야. 이청화"

내가 말하자 트로웰은 고개들 들어 나를 바라본다.

"이..청화?하지만 넌 분명.."
"엘,아니야. 나는..다른사람이야"
"아니..난 확신해.. 분명 엘이야.나..그때 다짐했어..너가 받아주지 않아도 계속 다가갈꺼라고..너가 그랬던것 처럼..그러니까 너무 밀어내지 말아줘..그럼 내일보자."

트로웰은 그대로 말하곤 나가버린다.
그가 나가자 나는 참아왔던 두려움에 그대로 주저 앉아 버린다.
나는 떨리는 손을 반대쪽으로 잡으며 감추었다

그리곤 빨리 학교 밖으로 나가 집까지 전속력으로 뛰었다. 집에는 강한 결계가 쳐져 있었다. 아무리 트로웰이라도...엘뤼엔이 온다해도 뚫지못할 그런 결계가...
그 결계는 엘이 주신님이 주신 반지를사용해 만든것이다. 이 반지는 주신님이 직접만든거라 그런지 주신님의 신력이 많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신력을 이용해 내 저택은 물론 내 비밀의 방에까지 결계를 친것이다.

나는 재빨리 내방으로 들어간후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결국 바닥에 주저 않아 울어버렸다

"흑..흐읍..다시는..만나고 싶지 않았는데..왜 또 나타난거야..왜!!"

나에게 그런 커다란 상처를 안겨줘놓고 이제와서 사과하면 다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카류안의 저주라고는 해도 날 배신했던 그들이...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다

"엘.."

때마침 라세크가 날 찾아왔다
그는 내가 말해주지 않았기에 나에게 있었던 일을 알지 못했다. 다만 주신님에게 엘이 상처받았으니 옆에서 도와주라는것 뿐..

"라세크.."

나는 울먹이며 라세크에게 달려가 안겼다
라세크는 놀랄만도 하지만 그저 나를 토닥여주었고 나는 그런 그의 손길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흑..흐아앙!...흑!!나..난..믿었는데..!그런데..그런데..!흐아아앙"

아프다. 너무 슬프다. 그들을 보는게 고통스럽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까지 그들과의 추억에 둘러쌓여 있었다. 그런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나는 라세크의 옷깃을 붙잡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라세크는 내가 울음을 멈출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흑..흐읍.."

"이제..다 울었어?"

라세크가 다정하게 물어왔다

"흑..으응.."

나는 겨우 울음을 멈추고 말했다

"엘.. 마음이 정리되면 나한테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려줘..옆에서 있어줄께"
"옆..에?"
"물론!그러니까 이렇게 웃어봐!너는 웃는게 어울려~"

라세크는 싱긋 웃어보였다.

두근

'어?뭐지?이거..왜..?'

잠깐이지만 심장이 그를 향해 뛰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였기에 엘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곤 웃고 있는 라세크에게 활짝 웃어주었다

"응!!"

고마워,라세크..강지훈일때나 지금에나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
덜컥

"왔나.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군"
"엘뤼엔..엘을..찾았어"

벌떡!

"뭐..?"
"엘을 찾았다고?"

엘뤼엔과 이프리트는 각각 놀란표정를 짓고는 흔들리는 동공으로 트로웰을 바라보았다.

"같은반에...엘이랑 굉장히 똑같이 생긴애를 봤어...분명 엘일꺼야..하지만 나를 기억하지 못해"
"어쩌면..못하는 척 하는 걸수도 있겠지"
"그게..무슨소리야?"
"잘 알고 있지 않나. 만약 정말로 엘이 거짓말을 한거라면 그건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일단 확실하든 아니든 다른애들을 부르자!내가 페르데스한테 연락할께,트로웰은 크로아첸한테 알려줘"
"알었어.."

그들은 각각 통신석을 통해 크로아첸과 페르데스한데 연락했다. 그리고 그들은 10분도 안되서 그들의 집으로 도착했다

"엘을 찾았다고?"
"확실히 똑같은 얼굴이였어"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 안그래도 아까 엘을 따라가 봤는데 집에 결계가 쳐저 있었어. 깨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였지."
"확실히..이상하네.."
"만약 그녀석이 진짜 엘이라면 결계는 아마 주신의 신력으로 만든 걸꺼다."
"그게 무슨소리야,엘뤼엔?"

이프리트가 묻자 엘뤼엔이 대답한다

"말 그대로다. 그리고 진짜로 엘이 맞다면 엘은 아마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거다."
"자세히 설명좀 해봐!"
"니머리로 생각이란걸 해봐라 도마뱀. 평범한 인간이 정령왕도 뚫지 못하는 결계를 칠수 있을거 같나. 하지만 결계는 보란듯이 쳐져 있지. 그건 엘이 정령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의..아니면 그자의 힘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정령왕보다 강한건 상급신밖에 없지만 상급신들은 대부분 이 일을 모른다. 그렇다면 남은 건 단 한명.."

"주신..이구나.."
"그래. 주신이면 그사건은 분명히 알테고 엘에게 자신의 힘을 조금 나누어 주어 지구로 보냈고 엘은 그 힘으로 결계를 쳤다. 그리고 이 모든건 엘이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을때에만 가능한 상황이지."
"그럼..엘은 정말로 우리를 만나기 싫어서 모른척을"

이프리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포기할수는 없어"
"트로웰?"
"그때 분명 다짐했어. 엘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사과하겠다고..그러니 계속 다가갈거야. 나를 밀치더라도.."

다들 속으로 생각한다. 그들 모두 같은 다짐을 했었다. 받아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다가가겠다고..

"아무튼!일단 한번 엘을 보러가자!"
"하지만 결계가 있다며. 트로웰,네가 해도 안된다고 했잖아"
"그건 걱정마,페르데스. 아까 들었는데 엘은 저녁 7시 30분에 무슨 절벽앞에서 친구들과 만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엘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보면 엘이 분명히 나올꺼야"
"지금 6시30분입니다. 빨리 가죠!"
"다들 어서 가자!"

그들은 마법으로 모습을 감추고 엘이 느끼지 못하도록 기운까지 확실하게 감추었다.

<이동>

***
"빨리 준비해야겠다"

내방으로 돌아온 나는 서둘러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아까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은 화장으로 확실하게 감추어 두었다.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배운 화장법이다.
라세크는 진작에 수행천사에게 잡혀서 돌아간지 오래였다

나는 작전때 입을 옷을 챙긴뒤 항상 입던 옷으로 바꾸었다. 예전에 내가 전 보스의 아들을 구했을때 입었던 그 옷이였다.이제 문밖으로 나가면 비서가 차를 끌고 올것이다.

나는 서둘러서 문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얼마 안가 담희가 끌고온 차가 보였다

"얼른타세요"
"알았어"

나는 차를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했다.

***
뒤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던 이들은 엘의 새로운 모습에 놀랐다

"대부..이제,대모라고 불러야하나?"
"애인...진짜 이쁘다.."
"너같은 놈한테 내 딸 안준다"
"화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따라가자!"

이프리트의 말에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날아서 그차를 쫓아 가기 시작했다
30분후에 차는 어느 절벽에서 멈추었고 엘이 내렸다

"오~보스 완전 이쁜데~"
"우리학교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괜히 가지고 있는게 아니야~"
"시..시끄러!빨리 옷이나 갈아입자"

엘은 어느 근처 화장실로 들어가 서둘러 작전할때의 옷으로 갈아 입었다
그리고 나오는 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

검은색 바지에 티셔츠,그리고 검정색 가죽재킷에 어깨에는 아주작게 조직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검은마스크와 모자

를 쓰고 머리를 하나로 올려 묶은 엘위 모습은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첩보요원같았다

뭐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대체 뭘하길래 저렇게 입고 가는거야?"
"일단 지켜보죠"

엘과 친구들은 철벽앞으로 모였다. 그러자 엘이 말했다

"다들 준비됬지? 그럼 시작해볼까?"
"알겠습니다!보스!"

"???보스?"

그들은 황당했다. 갑자기 보스라니? 엘이 어느 조직의 보스라고?

그들이 황당해 하는 사이에 그들은 절벽을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위..위험하잖아!!"
"심지어 능숙해보이는군"
"이런일을 많이 했나보네.."

그들의 말대로 엘은 누구보다 빠르게 절벽을 올라갔다.

5분정도가 흐르자 엘은 정상에 도착했다.
그리곤 거의 다 올라와있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 끌어 올렸다.

"다올라왔다~암벽등반은 언제 해도 힘들어~"
"청화 넌 체력이 괴물이야"
"킥킥,그러니까 보스지 수진아."
"떠들지 말고 빨리들와~"
"네에~"

대화를 듣고 있던 그들은 건물안으로 소리없이 몰래 들어가는 그들을 따라갔다

"작전은 다들 기억하지?"
"물론!끝나면 신호줄게"
"부탁한다"

소라와 다빈이가 출발하자 엘은 수진이와 복도에 숨어 무기를 정비했다. 맞으면 기절하는 전기 충격기를 탑재한 경찰봉과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한 수갑. 그리고 단검과 총까지. 원래 그것은 불법이지만 비밀조직의 보스와 간부인 그들에게는 예외적으로 허락되었다
무기를 다 정비하자 때마침 두사람에게서 신호가 왔고. 그들은 동시에 앞으로 나가 발차기로 문을 날려버렸다

쾅!!

"누..누구냐!!"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구냐가 뭐냐?누구냐가
수진이가 중얼거렸다

둘은 말없이 경호원들을 처리했고 모든 경호원들이 쓰러지자 이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다.

"오..오지마!!"
"!!"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보니 한 늙은 남자가 매매될뻔한 여자를 인질로 잡았다
처음엔 엘도 놀랐지만 곧이어 평온해졌다. 뒤에 있는 사람을 보았으니까

"으아악!"

그는 뒤에 있는 소라에게 뒷목을 맞고 그대로 기절했다.
순진하게 브이자를 그리며 미소짓자 그들은 마주 웃으며 남은 놈들을 처리해나갔다.
마지막 한놈이 남자 나는 그자도 처리하기 위해 다가갔다.
남자는 벌벌 떨었다.

"너..너 내가 누군줄알고!!"
"이보세요 아저씨. 여기가 조선시대인줄 아나봐? 열받으니까 그 입좀 닥쳐"

나는 그 사람을 발로 걷어차 기절시켰다.
이내 다 쓰러지자 우리는 매매될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단검으로 손목에 묶인 밧줄을 풀고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곧있으면 경찰이 올꺼니까 조금만 참고 있어요"
"네..네!"

그들은 안심했는지 이내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다. 그때였다

"보...보스!!"
"사르?왜그래?"

사르. 그것은 소라의 코드네임이다. 현장에 있을때 이름을 불러 정체를 들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수진의 코드네임은 진. 다빈의 코드네임은 비나 였다. 다들 딱히 의미는 없고 그냥 이름에 있는 자음 모음을 따다 만들었다

"그게..경찰이 벌써왔어"
"벌써?"

그때 갑자기 라이트가 비추었고 그들은 눈이 부셔서 손으로 앞을 가렸다.

그리고 곧이어 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너희는 누구지?"

그곳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한 형사가 우리에게 경계하며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 받은 뒤 어쩔수 없이 엘이 나가 조직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건!!이거..실례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하죠"

그는 한순간에 공손해졌다. 이 문양의 의미를 의외로 많이 알고 있는 모양이였다.

그들은 서둘러 알아놓았던 탈출구로 나가 원래 있던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절벽아래에는 담희가 차를 대기 시켜놓고 있었다. 그들은 아까의 그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었고 엘은 아까의 싸움으로 지워진 화장을 다시 고쳤다.
화장실에서 나온 엘의 모습은 말그대로 여신
누구도 아까의 사람과 동일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것이다.

"다들 바로 집으로 갈꺼지?"
"물론~"
"그럼 바래다 줄게. 어서타"
"땡큐~"

그들은 차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갔다. 친구들이 모두 집에 도착하고 엘만 남자 엘은 담희에게 말한다.

"담희야. 나 할일이 좀 있어서 집근처 공원에 좀 내려줄래?"
"알겠습니다, 보스."

엘은 근처 공원에서 내렸고 엘은 어렸을때부터 자주 찾던 호수로가 풀밭에 앉았다
예전부터 심란할때면 항상 찾어오곤 했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엘이 예전에 라세크를 만난곳이다

***
한편 엘이 싸우는 것부터 돌아오는 것까지 계속 지켜보던 그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였다

엘이 어느 조직의 보스가 되어 사건이 있은 곳에 몰래 들어가 사건을 처리하고 몰래 빠져나오는 일을 하다니

물론 마지막엔 들키긴 했지만 너무 의외의 모습에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지금의 모습은 아까의 그 맹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여리게만 보이는 소녀라니

그들은 호수를 쳐다보고 있는 엘을 바라보았다.
엘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했고 슬퍼보였다

"엘.."

그들은 엘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했고 마법을 풀고 조용히 엘에게 다가갔다

부스럭

"??"

나는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

그리고 놀랐다. 보고싶지 않았던..나를 두려움에 떨게하는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심하게 떨렸지만 이내 그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소용 없겠지..'

"왜..여깄어,트로웰?"

나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말했다

"엘.."
"대부.."

슬프다...하지만 그보다도 그들이 미웠다. 이제와서 사과하는 그모습이 너무나도 미웠다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보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발을 떼는 나의 손목을 누군가가 붙잡아 세웠다
그는 바로

'엘뤼엔..'

나에게 무수히 많은 정을 쏟아부었던 엘뤼엔. 한때 부자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그 관계는 깨어진지 오래였다

"초면에 실례네요. 놓으시죠"

나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엘뤼엔은 놓기는 커녕 오히려 손목을 더 꽉 잡았다

"엘..내딸.."

'내딸..'
그말을 듣고 나는 떨리는 눈동자를 멈출수 없었다.
마음속 한 구석에선 그들과 다시 예전처럼..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지도 몰랐다. 하지만 충격이 너무 크기에...
상처가 너무 크기에...내 이성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 눈이 떨리는 걸본 그들은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다

"역시..엘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이상 숨기는 것도 소용 없을 것 같았다

"엘..미안하다..정말로.."
"...마"
"...엘?"
"사과하지 말라고!!"

나는 엘뤼엔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내눈엔 어느샌가 눈물이 차올랐다.

"!!엘..!"
"그 이름 부르지마!!"
"엘..!우리가 정말 너무 미안해..!"
"듣기 싫어!!너희가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믿었는데 배신당했을때! 그때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해 봤냐고!!"
"엘..그건!"
"시끄러!!너희가 하는 사과는 그저 너희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하는 사과일뿐이야!!진짜 미워어어!!!"

나는 크게 소리치곤 그대로 뒤로 돌아 집으로 뛰었다.
그들은 그자리에 멍하니 있었고 그사이에 나는 집으로 재빠르게 갈수 있었다
다행히 공원과 집이 가까워서 나중에 정신을 차린 그들이 쫒아오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울면서 들어온 나를 발견한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다

"어머,청화야!왜그러니?무슨일 있어?"
"엄마,아빠한테 얘기 해 보렴. 들어줄게"

엄마,아빠..라고..

부모님을 보자 아까의 엘뤼엔이 생각난다

'생각하면 안되!'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부모님 품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
부모님은 아무말 없이 그저 나를 안아주었다

한때 가족이였지만 이제는 갈라져버린 그들의 슬픈 운명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한참동안을 운 나는 겨우 울음을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보는 붉은 눈동자가 슬픔에 잠겼다

"너에게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거니..엘.."
===
공백제외:8143
유희물이랑 배신물이랑 섞으려니 스토리가 약간 산으로 가는것 같네요ㅋㅋㅋ

댓글 등록순 최신순 댓글알림

레이테
와 너무 재밌어서 엄청 빨리 읽게 되네요!
드디어 만나다니! 너무 재밌어요!
2020.06.19. 18:14 답글쓰기

ko 작성자
감사합니다~요새 시간이 많아서 계속 소설만 쓰고 있네요ㅋㅋㅋ
2020.06.19. 18:54 답글쓰기

민Mn
넘 재밌어요!! 다음화가 기다려집니다~~!!!
2020.06.19. 19:14 답글쓰기

ko 작성자
감사합니다~내일 올릴께요~
2020.06.19. 19:35 답글쓰기

rin